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8. 7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바람의 섬’ 제주도의 풍력발전, 바람 잘 날 없다(7.16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신규 LNG 발전 건설, 제주-육지 송전선로 신설 등에 1조원 더 투입.
화력발전소를 더 지어 재생에너지를 백업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...
- ☐ 풍력발전 전력 저장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(ESS)는 턱없이 부족하고
풍력발전기 1기 용량(3MW)에도 미치지 못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신규 LNG 발전 건설하는 주된 목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
제주도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것임

* 최대전력(MW) : (’13) 716 → (’14) 762 → (’15) 804 → (’16) 849 → (’17) 950

- ☐ 풍력발전 설비 용량 MW와 ESS 전력 저장용량(MWh)를 단순 비교
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
○ 풍력 발전기 1기(3MW)당 필요한 전력 저장용량은 0.6MWh*임

* 출처 : 남부발전 자료 제공

※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
정대환 사무관(044-203-5372)
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권순목 사무관(044-203-5242)